

박정훈 대표님을 위한

정관점검 및 임원 퇴직금 재원 확보 플래닝

(주)대영테크 | 자동차부품 제조

2026. 2.



고객 프로필

법인명: (주)대영테크

대표: 박정훈 (57세)

업종: 제조업(자동차부품)

입력: 23년 / 매출 180억

직원: 62명

지분: 대표 68% / 배우자 17%

장남 10% / 차남 5%

.today's 결정사항

[정관 정비] : 오늘 확정할 것은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지'입니다

정관 정비와 퇴직금 재원 확보, 두 가지 방식 중 대표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A안: 효과 우선 – 통합 정비

정관 개정(퇴직금 배수·종류주식·배당규정)을
한 번의 주주총회로 일괄 처리

경영인정기보험 즉시 가입으로
퇴직금 재원 확보 + 가지급금 상계 병행

→ 속도↑ / 초기 부담↑

VS

B안: 부담 우선 – 단계적 실행

1단계: 정관 정비(퇴직금 배수 우선)
2단계: 경영인정기보험 설계
3단계: 종류주식·승계 설계

각 단계 세무사·회계사 확인 후 진행
변화 최소화, 리스크 분산

→ 안정성↑ / 완료 시점 늦어짐

☞ "대표님, 23년간 쌓아오신 회사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정리를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할지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현재진단

[리스크 스냅샷] : 4가지 핵심 지표로 보는 (주)대영테크의 현재 위치

정관 미비·가지급금·잉여금 누적·승계 부재 – 4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정관 퇴직금 규정

부재

손금산입 근거 불확실



가지급금

4.2억

인정이자 연 1,900만 발생



미처분이익잉여금

31억

주가 상승 → 승계비용 증가



경영인정기보험

미가입

대표 유고 시 보장 공백

-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규정이 없어 퇴직 시 약 5.5억의 손금산입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 가지급금 4.2억에 대해 매년 인정이자(4.6% 기준) 약 1,900만원이 대표 상여 처분되고 있습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31억 누적으로 주당 가치가 상승하여, 장남 승계 시 종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미가입으로 대표 유고 시 법인의 유동성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 "대표님, 23년간 탄탄하게 성장시킨 회사인데, 지금 이 4가지를 정리하면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시겠습니까?"

각 항목의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상황

[숫자 기반 점검] : (주)대영테크 재무·정관·보험 현황 데이터

법인과 대표 개인의 재무 데이터를 객관적 수치로 정리합니다

구분	항목	현재 현황	비고
법인	자본금/잉여금	자본금 5억 / 이익잉여금 38억	미처분이익잉여금 31억
	가지급금	4.2억 (2019~2021 누적)	인정이자 연 1,900만원 과세
	법인 부채	12억 (운영 8억 + 시설 4억)	월 현금흐름 여유 3,500만
	경영인정기보험	미가입	대표 유고 시 보장 공백
	퇴직 제도	DC형(직원)/ 임원은 충당금	정관 퇴직금 규정 없음
정관	임원퇴직금 규정	부재	손금산입 한도 불확실
	종류주식·의결권 특례	부재	승계 법적 기반 미비
대표 개인	급여·배당	급여 9,600만 / 배당 2,400만	연간 총 수입 1.2억
	기준 보험	종신 1억(완납) / CI 5천만	실손 월 8만

☞ "대표님, 법인과 개인 모두 기본 체력은 탄탄합니다. 다만 정관과 세무 쪽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중 우선순위를 정해볼까요?"

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¹₂₃ 실행우선순위

[단계별 정리] :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세무 리스크 방어 → 퇴직금 재원 확보 → 승계 기반 구축, 이 순서가 맞으십니까?

1

긴급

정관 정비 (퇴직금 규정 신설)

임원퇴직금 지급배수(3배수) 규정 신설
→ 퇴직금 약 5.5억 손금산입 근거 확보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2

중요

가지급금 해소 + 보험 설계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 퇴직금 재원 적립
→ 향후 해약환급금으로 가지급금 상계 활용
→ 인정이자 과세 부담 단계적 해소

3

계획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배당 정책 수립 + 임원퇴직금 충당
→ 주당 가치 하락 → 승계 비용 절감
→ 법인 연금보험 활용 검토

4

증장기

승계 설계 (종류주식·지분 이전)

정관에 종류주식·의결권 특례 도입
→ 장남 승계 법적 기반 마련
→ 차남 지분 정리 방안 협의

☞ "대표님, 한 번에 다 하시기보다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순서가 맞으신지요? 1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겠습니다."

1순위인 정관 정비, 관련 제도와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도활용(기준)

[법·세무 근거] : 정관 정비와 퇴직금 설계의 법적 기반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상법에 따른 원칙과 예외,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원칙: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금 = 퇴직일 현재 직전 1년
총급여 $\times 1/10 \times$ 근속연수
 \times 지급배수(정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정관에 규정된 금액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

※ 지급배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 필요

예외: 소급 적용 유의사항

정관 변경 시점 이전 근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 시:

세무당국이 부당행위로
부인할 가능성 존재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

→ 세무 전문가 사전 검토 필수

주의: 가지급금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89」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가산 의무

현행 적용이율: 4.6%
(현행 기준, 확인 필요)

미상환 시 대표 상여 처분 →
소득세·4대보험 추가 부담

→ 조기 해소가 세무적으로 유리

※ 위 법조항은 현행 기준이며, 최신 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법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사·회계사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대표님,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원칙과 주의할 점을 먼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준을 토대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도활용(상세)

[선택]

[승계 법적 기반] : 종류주식·의결권 특례 도입을 위한 상법 기준

장남 승계를 위한 정관 조항 도입 시 검토할 법적 요건을 정리합니다

항목	근거 법조항	핵심 내용	유의사항
종류주식 발행	상법 제344조	배당우선·의결권 제한주 등 정관에 규정 시 발행 가능	정관 변경 + 주총 특별결의 필요
의결권 배제·제한	상법 제344조의3	종류주식에 의결권 배제·제한 규정 가능	차남 지분(5%) 처리 시 활용 검토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가능	이사회 결의 + 배당가능이익 한도 확인
이익소각	상법 제343조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식 수 감소 → 지분율 변동	주주 전원 동의 또는 정관 규정 필요
가입승계 증여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100억 한도, 10~20% 특례세율	10년 사후관리 요건 엄격 (현행 기준, 확인 필요)

※ 위 법조항은 현행 기준이며, 최신 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법률 요건 총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님, 종류주식이나 이익소각은 다른 중견 제조업체에서도 승계 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부족한 부분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족한 부분

[격차 확인] : 필요한 재원 vs 현재 준비된 재원, 격차는 얼마입니까?

퇴직금 재원·가지급금 상환·승계 비용, 3가지 격차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항목	필요 금액	현재 준비	부족분
대표 퇴직금 재원	약 5.5억	0원 (별도 적립 없음)	5.5억
가지급금 상환 재원	4.2억	연 1~1.5억 상환 가능	약 2.7~3.2억
승계 증여세 재원	약 3~4억 (추정)	장남 개인 자금 미확인	3~4억 (추정)
경영인 유고 대비	매출 대비 최소 10억	종신 1억 (개인)	9억 이상
합계	약 22.7~23.7억	약 1~2.5억	약 20~22억

△ 승계 증여세는 임여금 정리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현재 주당 가치 기준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기 수치는 현재 재무제표 기준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은 시장 상황·세법 변경·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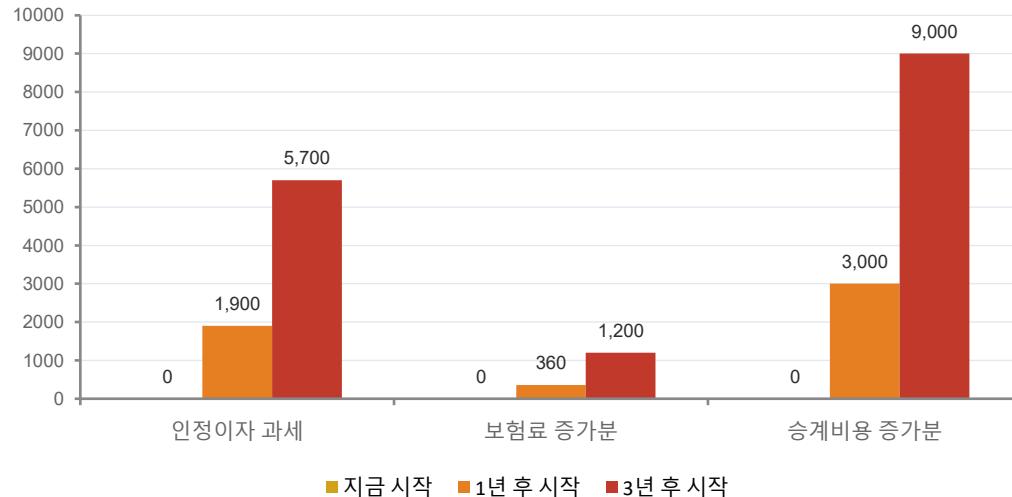
👉 "대표님, 격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정관 정비와 보험 설계를 단계적으로 하면 상당 부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비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격차를 지금 시작하는 것과 미루는 것,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회비용

[시간의 가치]: 1년 미루면 달라지는 3가지 비용을 확인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월 부담이 낮고, 미룰수록 같은 효과를 위한 비용이 커집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년 약 1,900만원 추가 과세
3년 미정리 시 누적 약 5,700만원

보험료 상승

57세 vs 58세: 연간 약 360만원 차이
건강 조건 변화 시 인수 불가 가능성

승계 비용 증가

잉여금 연 3~5억 증가 추정 시
주당가치 상승 → 증여세 연 3천만↑

※ 상기 수치는 보수적 가정(인정이자를 4.6%, 보험료 연령 차이, 잉여금 연 증가 가정) 기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님, 미루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월 부담이 낮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해결 방법을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3원칙] : 정관 정비 → 재원 확보 → 승계 기반, 이 순서로 설계합니다

해지가 아니라 재배치·구조 설계입니다.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플랜을 세웁니다

원칙 1: 법적 기반 우선

-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3배 규정 신설
 - 종류주식·의결권 특례 조항 도입
 - 배당 규정 정비
- 모든 후속 설계의 법적 근거 확보

원칙 2: 세무 리스크 방어

- 가지급금 4.2억 단계적 해소
- 경영인정기보험 → 퇴직금 재월 적립
- 해약환급금으로 가지급금 상계 활용
→ 인정이자 과세 부담 점진적 감소

원칙 3: 승계 비용 절감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 주당가치 하락
- 배당·퇴직금 충당으로 잉여금 분산
- 적정 시점에 장남 지분 이전 실행
→ 증여세 부담 최소화

보험·연금이 맡는 역할: 유동성 확보(사건 발생 시 즉시 현금) + 리스크 전가(큰 손실을 예산화) + 실행 지속성(계약 구조로 목표 고정)

👉 "대표님, 이 3가지 원칙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A안과 B안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이 원칙을 바탕으로 두 가지 구체적 선택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솔루션 A/B

[두 가지 방법 비교] : 효과 우선 vs 부담 우선, 어느 쪽이 편하십니까?

A안은 속도, B안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입니다. 대표님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비교 항목	A안: 효과 우선 (통합 정비)	B안: 부담 우선 (단계적 실행)
정관 정비 범위	퇴직금 배수 + 종류주식 + 배당규정 1회 주총으로 일괄 처리	1단계: 퇴직금 배수 규정만 우선 2단계: 종류주식·배당규정 추후 처리
경영인정기보험	월 300만원 × 8년 납입 사망보장 10억 + 퇴직금 재원 적립 정관 정비와 동시 가입	월 300만원 × 8년 납입 (동일) 정관 정비 완료 후 가입 세무사 확인 후 진행
법인 연금보험	월 200만원 (잉여금 분산) 정기보험과 동시에 시작	2단계에서 검토 정기보험 안정 후 추가
월 총 부담	월 500만원 (법인 부담)	월 300만원 → 추후 500만원
가지급금 해소	해약환급금 활용 상계 병행 + 대표 연 1~1.5억 상환	대표 연 1~1.5억 상환 우선 보험 활용은 2단계에서 검토
승계 설계	정관에 종류주식 규정 포함 잉여금 정리 후 자분이전 준비	3단계에서 별도 진행 정관·보험 안정 후 설계
기대 효과	2~3년 내 주요 리스크 정리 완료 승계 로드맵 조기 확보	각 단계별 검증 후 진행 리스크 최소화, 배우자 설득 용이

※ 상기 보험료·효과는 보수적 가정(연복리 3%) 기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수령액은 시장 상황·세법 변경·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해지환급금 예시는 상품설명서 참조).

선택하신 안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는지 구체적으로 매칭해 보겠습니다→
• "대표님께서 단계적 실행을 선호하시니 B안이 맞을 수 있는데, A안과 B안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이 좋으신가요?"

솔루션 2

[부족분 매칭] : 각 부족분을 어떤 수단으로 채우는지 연결합니다

부족분 → 해결요소 → 적용수단, 3단계로 격차를 채워갑니다

부족분	해결 요소	적용 수단
퇴직금 재원 부재 (5.5억 부족)	정관 퇴직금 배수 규정 신설 + 퇴직금 재원 적립 구조	경영인정기보험 (법인계약) 월 300만 × 8년, 해약환급금 적립 + 정관 개정 (주총 특별결의)
가지급금 4.2억 (인정이자 과세)	단계적 상환 + 보험 해약환급금 상계 활용	대표 연 1~1.5억 현금 상환 + 경영인보험 환급금 상계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승계 비용 증가 리스크 (잉여금 31억)	잉여금 분산으로 주당 가치 하락 유도	법인 연금보험 (잉여금 분산) 월 200만 + 배당 정책 수립 + 퇴직금 충당금 설정
대표 유고 시 보장 공백 (9억+)	사망·장해 시 법인 유동성 즉시 확보	경영인정기보험 사망보장 10억 (퇴직금 재원과 겹용) + 기존 종신 1억(개인) 유지
승계 법적 기반 부재	정관에 승계 관련 조항 도입	종류주식·의결권 특례 정관 도입 (B안: 2~3단계에서 진행) + 종신보험(승계 재원, 선택)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렇게 각 부족분마다 채워가는 수단이 정리됩니다. 보험은 유동성과 리스크 전가 역할을 맡고, 정관은 법적 구거를 맡는 구조입니다. 이 방향이 괜찮으시면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 오늘 정리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이 체크는 오늘 검토한 내용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체크입니다

진행 방식 선택

- A안 진행 (효과 우선 – 정관 일괄 정비 + 보험 동시 설계)
- B안 진행 (부담 우선 – 1단계 정관 정비 → 2단계 보험 설계)
- 보완 후 재결정 (보완 항목: / 재결정 날짜:)

다음 단계 (B안 기준)

1. Step 1. 세무사·회계사 미팅 (2주 내)
2. Step 2. 정관 개정안 작성 (1개월 내)
3. Step 3. 임시주총 소집·결의
4. Step 4. 경영인정기보험 설계·가입
5. Step 5. 분기별 정기 리뷰

【성향별 클로징 – 추천: 안정·보수형】

[추천] 안정·보수형: "대표님, 오늘 본 내용 중 가장 안전한 첫걸음은 정관 정비입니다. 세무사님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1단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다른 제조업 종견기업도 이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리·전문가형: "수치로 확인하셨듯이, 정관 미비로 인한 손금산입 불확실성과 인정이자 연 1,900만원은 명확한 비효율입니다. 법적 기반을 먼저 갖추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감성·가족중심형: "23년간 키워오신 회사를 장남에게 안정적으로 넘기시려면, 지금 기반을 정리해 두시는 게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첫 단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결정지연·신중형: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세무사님과 정관 검토 미팅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다음 단계를 정하셔도 충분합니다. 미팅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본 자료는 상담 보조 자료이며,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기록 – 결정 시점: 정관 정비 필요성 공감 후 / 선택안: B안(단계적 실행) / 다음 행동: 세무사 미팅 일정 확정

컨설턴트 참고용 (고객 비공개)

핵심 니즈: 정관 정비(퇴직금 배수 규정)로 손금산입 근거 확보 + 가지급금 해소 + 승계 기반 마련

가장 큰 부족분: 퇴직금 재원 5.5억 전액 미적립, 경영인정기보험 미가입

오늘 결론 질문: "A안(통합 정비)과 B안(단계적 실행) 중 어느 쪽이 편하시겠습니까?"

예상 반대 및 즉답

"보험료가 부담된다" (배우자)

→ B안 1단계는 보험 가입 없이 정관만 정비. 추가 비용 0원으로 시작. 보험은 세무사 확인 후 2단계에서 검토.

"세무조사 받으면 어쩌나"

→ 정관 정비가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가지급금 방지가 더 큰 세무조사 트리거.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나"

→ 매출 100억 이상 제조업 법인의 약 70%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음. 업계 일반적 관행.

선택안 A/B 시뮬레이션 비교

항목	A안 (효과 우선)	B안 (부담 우선)
월 납입금	500만원(정기 300+연금 200)	300만원 → 추후 500만원
65세 예상 퇴직금 재원	약 5.5~6억 (연복리 3%)	약 5~5.5억 (연복리 3%)
예상 세후 절감 효과	연 약 1,500~2,000만원	연 약 900~1,200만원 (1단계)
리스크 방지 수준	사망보장 10억 + 임여금 분산 <small>*사망보장 수준은 보수적 가정 기반이며, 세무사 회의에 검증 필요.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small>	사망보장 10억 (2단계 후)

본 PT는 코어 12장 + 확장 1장(06-2 제도 상세) = 총 13장으로 구성됨(확장 사유: 리스크 축 3개 이상 + 승계 관련 법적 기반 상세 설명 필요 – 트리거 A2 해당)

확인 필요: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최신 개정 여부 ② 인정이자 적용이율(현행 4.6%) 확인 ③ 대표 건강상태(고혈압)에 따른 보험 인수조건 사전 확인